

파도의 표정도 각양각색, 클래식 음악 속의 바다

누구에게나 바다는 낭만의 대상이다. 밤바다, 여름의 밤바다, 이 말만으로도 우리는 설렌다. 그런 바다는 작곡가들에게 영감으로 다가갔다. 한없는 동경의 대상이자 영원의 상징으로, 때로는 공포의 대상이자 미지의 세상으로, 혹은 도피의 공간으로 말이다. 그런 바다를 캔버스에 그리듯 오션지에 음표로 담은 작곡가가 있는가 하면, 바다에서 떠오른 느낌과 분위기를 추상적으로 담은 이도 있다. 이번에는 바다를 담은 클래식 음악들을 살펴본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바다는 무엇일까.

● 공포의 바다

바다 같은 상사. 그는 마음씨가 바다 같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이다. 호통을 치니 사무실이 뒤집힌다. 이탈리아의 베르디(1813~1901)가 1887년에 작곡한 오페라 '오텔로'의 서두에 등장하는 바다는 화난 상사의 표정 같다. 그 바다는 성난 포세이돈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간신 이야기의 간교로 자신의 부관 카시오와 부인 데스데모나를 오해하고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 오텔로. 그 비극을 암시라도 하듯이 오케스트라는 바다의 폭풍을 거침없이 묘사하며 서막을 연다. 여기서 폭풍우를 묘사하는 역할은 '윈드머신'이라는 악기의 몫이다. 이 악기는 도·레·미 등과 같은 게이름을 낼 수 없다. 그저 '확확'거리는 거센 소리만 낼 뿐. 이 윈드머신이 거침없이 연주해야 바다를 헤집는 폭풍우의 풍경이 피부로 와 닿는다.

러시아의 림스키-코르사코프(1844~1908)가 1888년에 작곡한 '세헤라자데'에도 바다가 나온다. 이 곡은 모두가 잘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소재로 한 곡이다. 가사 한 줄 없는 오케스트라 곡이다. 그런데 그 음들을 듣다보면 소설을 읽는 듯 하나하나 풍경이 그려진다. 꼼꼼하고 치밀한 묘사다. 1악장 '대양과 신밧드의 배'에서 풍량을 묘사한다. 하지만 이 풍량은 앞서 살펴본 '오텔로'에 비하면 중량 미달이다. 역시 비극의 무게는 늘 무거운 법인가 보다.

● 그림 속의 바다

회화와 소설 속의 바다를 음표로 그린 것과 달리, 그림 속 바다를 음표로 그린 작곡가도 있다. 스위스의 아르놀트 비클린(1827~1901)이 1886년에 그린 '죽음의 섬'은 섬뜩하다. 아마도 앞서 살펴본 '오텔로'의 폭풍우처럼 화를 낸 상사에게 혼쭐이 난 부하의 마음은 '죽음의 섬'에 당도해 있을지도 모른다. 이 그림은 유럽 아드리아 해에 있다는 전설 속 섬의 이야기를 죽음과 연결시킨 작품이다. 음울한 바다에 떠 있는 섬은 고립과 죽음의 기운을 뿜어낸다.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러시아의 라흐마니노프(1873~1943)는 같은 제목을 차용하여 교향시 '죽음의 섬'을 작곡했고, 1907년에 세상의 빛을 보았다. 역시, 죽음이란 예술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인가 보다. 오케스트라가 뿜어내는 음악은 회화 속의 분위기와 고스란히 닮아 있다.

'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맨 처음에 오는 곡은 프랑스의 드뷔시(1862~1918)가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작곡한 교향곡 '바다'이다. 총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바다 위의 새벽부터 정오까지(1악장)', '물결의 희롱(2악장)', '바람과 바다의 대화(3악장)'로 되어 있다. '교향적 스케치'라는 부제가 함께 붙었을 정도로 회화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곡으로, 우키요에(浮世繪)라고 불리는 일본 판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그림과 판화는 19세기 말에 유럽으로 건너가 인상주의 사조를 낳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림을 보니 배를 덮치려는 듯이 높은 파도와 흰 물결, 그 물결과 어우러지는 날렵한 뱃머리가 시원하게 다가오는 그림이다. 그 유동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잡은 결정체가 드뷔시의 '바다'인 것이다.

라흐마니노프의 '죽음의 섬'이 회화를 음악으로 '복사'한 듯 하다면, 드뷔시의 '바다'는 회화에서 떠올린 감정을 자유분방하게 그린 곡이다. 따라서 전자는 음악과 회화의 싱크로율이 99퍼센트이다. 드뷔시의 '바다'는 초대형 오케스트라가 약 25분 동안 선사하는 풍성한 화음과 향연을 통해 각자의 머릿속에 바다를 그려볼 수 있다. 상사에게 혼나 '죽음의 섬'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과이불개 過而不改, 시위과의 是謂過矣

사람의 특성을 규정하는 말이 많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사람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사람은 동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강의실 안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라기보다는 습관에 따라 움직이고 실수를 되풀이한다.

오늘날 ‘내’가 한 실수만을 쫓아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늦잠을 잔 뒤 급히 나오느라 챙길 것을 놓치기도 하고, 바쁘니까 교통신호의 정지선을 어기기도 하고, 나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회의에서 더 합리적인 상대의 의견을 잘못됐다고 우기기도 하고, 오늘 끝내기로 한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공자를 성현으로 안다. 하지만 역사적인 공자는 허점투성이를 지닌 보통 사람이었다. 그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실수를 되풀이했다. 그는 실수를 할 때마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지. 하지만 실수를 한 이상 솔직하게 시인해야지. 실수를 인정하고 원인을 따져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다.

그 결과 그는 실수와 관련해서 새겨볼 만한 말을 남겼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고쳐야지 하면서 실제로 고치지 않으려고 버티지 마라.”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

공자는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잘못을 해놓고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최초의 잘못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의 잘못을 낳게 된다고 보았다.

제자 안연은 공자가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같은 잘못을 두 번 되풀이 하지 말라”라는 불이과(不貳過)라고 말했다. 안연은 잘못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지 않으면 금방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멋지게 포착하고 있다. 언론이 특종 경쟁을 벌이느라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하여 오보를 낸다면, 바로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그만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버티면, 진실을 보도한다는 언론의 책무는 둘째 치고 언론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에 당도한 마음을 풀기 위해 ‘바다’를 택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아무튼 이 두 곡을 담은 음반 재킷은 영감을 주었던 그림을 신는 경우가 많다.

● 희망과 신비 그리고 사랑의 바다

우리가 바다를 찾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존재와 대면한 뒤, 희망을 품기 위해서다. 바다는 우리의 막힌 가슴을 뽕뽕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럴 때 어울리는 곡은 영국의 본 윌리엄스(1872~1958)가 1909년에 작곡한 교향곡 1번 ‘바다의 교향곡’이다. 미국의 국민시인 윌트 휘트먼(1819~1892)의 시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합창단의 가사로 차용한 이 곡 속의 바다는 ‘죽음을 극복한 인간 승리’, ‘미지의 영적인 세계로의 출범’ 등을 상징한다. 바다의 신비로움을 담은 2악장도 압권이다.

영국의 구스타브 홀스트(1874~1934)는 ‘행성’ 모음곡이라는 교향곡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1920년에 초연된 곡으로, 홀스트는 오케스트라 특유의 뽕뽕한 사운드 효과를 기가 막히게 구사한다. 총 7개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마지막 악장에는 ‘해왕성(Neptune)’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넵툰(Neptune)은 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신 넵투누스(Neptunus)의 이름을 딴 것. 그래서 바다(海)의 왕(王)을 그대로 해석해서 해왕성(海王星)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악장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여성합창은 바다 속을 누비는 신비한 인어의 모습을 표현한다.

바다와 잇닿은 항구에 발판을 둔 음악들은 다른 음악들보다 감정의 파고(波高)가 더욱 높은 것 같다. 특히 지중해로 들어서면 바다는 찬란한 태양과 만나 또 다른 생명력을 얻는다. 햇빛 찬란한 이탈리아 나폴리의 민요들. 그 중 ‘산타 루치아’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 그려진 사랑 노래들은 늘 한여름의 추억을 장식한다. 올 여름, 사랑하는 이와 같이 들어보자. 바다를 눈앞에 두고.

